



전춘성 진안군수, 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전달

전춘성 진안군수는 1일 군수실에서 대한적십자사에 2024년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 임영욱, 진안지구협의회 회장 박순복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전춘성 군수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적십자 봉사회에 감사드리다"며 "나눔 문화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에 잠시나마 위안이 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안지구협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스스로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쌀 지원 및 연말 갑장나눔 행사 등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 활동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는데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안수협서 전북·충청지역 수협조합장 간담회

부안수협은 1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포함 충청·전북지역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중심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청·전북 조합장 간담회에서 지역 조합장들은 고유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영에 대한 어려움과 상호금융사업 성장 기반 마련 및 고유가 유류지원등 여러 수산현안에 대한 해결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어려운 조합에 공감한 지원 등을 통해 조합들이 동반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수협이 먼저 공감한 조직 쇄신과 혁신을 통해 변화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설 명절 맞아 성금 기탁

남원소방서는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공은태·과장 최정화)가 설 명절을 맞아 성금 200만원을 남원시에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성금은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도록 의용소방대원들의 마음을 모은 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물품기부, 성금 전달 등 사랑 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 재난예방 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공은태·과장 최정화 연합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투자유치활동 노력에 감사”

김관영 도지사, 장청강 주광주 중국총영사에 전북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장청강 총영사에게 전북 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장청강 총영사는 지난 2020년 7월 주광주 총영사로 취임 후 새만금 한중산단의 중국자본 유치, 중국관광객, 유학생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대중국 협력추진을 위한 전문역할을 적극 수행해 전북의 대중국 교류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2020년 수해복구기금으로 일천만원, 2021년에는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일천만원을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로 중국자본유치, 중국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광주총영사



관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 문화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여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다. 그동안 장청강 총영사님이 중국기업들의 전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다"며 "명예도민증은 전북도민이 드리는 것으로 앞으로도 전북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은 호남지역에 위치해 전북을 관할하는 유일한 재외공관이며, 장청강 총영사는 한반도 공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정통 한반도 외교관이다. /김재훈 기자

남원 운봉읍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대민행정 이어가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읍장이 직접 위기에 처한 수급자, 장애인, 독거가구에 매일 방문 애로사항 청취, 생활환경 점검 등 발로 뛰는 소통하는 대민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읍봉읍에서는 2023년에는 총 475가구를 방문, 적극적으로 신청 및 서비스 지원 연계와 기타 생활민원을 청취하였다. 또한, 맞춤형복지팀 간호직 직원과 동행하여 협업, 혈당 검사 등을 실시하고 건강상담 또한 진행했다. 또한 읍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는 밑반찬 나

눔, 명절 이웃돕기 물품 전달과 운봉읍 애환회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에서 진행되는 장학금, 성금 및 이웃돕기를 통해 행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촘촘한 복지지원을 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이은주 읍봉읍장은 주민들에게 "힘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며, 2024년에도 현장 소통행정을 펼쳐 주민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운봉농협, 작은목욕탕 찾아 물품 전달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 관계자는 지난날 31일, 운봉농협(조합장 오용담)에서 운봉읍 사랑庵 작은목욕탕을 찾아 목욕탕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수건, 비누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이은주 읍장은 "이번 나눔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청결하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읍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은주 읍봉읍장은 "운봉농협의 지원으로 작은목욕탕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읍에서도 주민들이 목



욕탕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이어지는 이웃사랑 릴레이

무주군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발걸음이 이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에스제이파워 세종지점 신항철 대표가 무주군에 1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3만 장을 기탁했다. 신항철 대표는 "겨울이라 코로나와 독감, 감기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이라며 "건강은 마스크로 지키고 마음은 이웃들의 사랑으로 지켜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기탁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에스제이파워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난해부터 세종시를 비롯한 계룡시와 서산시 등에도 마스크(1백만 장)를 기탁한 바 있다. 무주군 안성면 금평마을 주민 장형한(65세) 씨는 지난 1월 30일 안성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농사지는 백미(10kg) 20포대를 기탁했다. 장형한 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직접 농사지는 쌀을 기부하게 돼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 초에만 모아진 이웃돕기 성금은 1억 2천 7백여만 원이며 마스크, 쌀, 식용유 등 상품도 3천여만 원 상당 모아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군, 설 명절 앞두고 나눔 손길 이어져

임실군에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위문품 기탁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사)대한한돈협회 임실군지부(지부장 김성두)는 지난날 31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한돈 240kg(3백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김성두 지부장은 "추운 날씨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한국수자원공사 심진감택지사(지사장 김철환)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 물품 꾸러미 40개(2백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김철환 지사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은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빠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꿈드래장애인협, 명절 이웃돕기 1000만원 기탁

장애인 단체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취약계층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많은 성금을 선포 기탁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자치도지사를 비롯 사단법인 꿈드래장애인협회 하태복 회장, 협회 사업단 임석주 대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의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꿈드래장애인협회는 도내 10개 지부를 가지고 있는 협회로, 꿈드래 작업장과 희망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합동결혼식, 한마음 체육대회 등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에 힘쓰는 단체다. 하태복 협회장은 "설 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고, 작은 나눔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나 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큰 금액을 선포 기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종길 거성축산 대표, 정읍시에 성금 200만원 기탁

정읍시 거성축산 국종길 대표는 최근 상교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국종길 대표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철수 시장은 "소중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설맞이 장보기 행사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고창전통시장을 방문해 각자 준비한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농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정호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따뜻하고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설 명절 고향사랑 고액기부 줄이어

임실군에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고액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이어지면서 훈훈한 새해를 맞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날 31일 기부자 3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액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먼저 평소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재경임실군 민회장을 지낸 홍훈표 고문(이)이 직접 임실군청을 찾아 연간 최대 한도액인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전 신덕면 월성리 김성만 이장의 며느리인 박보경 씨도 임실군에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고액 기부를 한 데 이어 올해도 고향 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대신석재 조남운 대표도 100만원을 기탁했다. 조 대표는 답례품인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을 재기부하며 훈훈한 지역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 주신 기부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